

하나됨과 나눔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오늘은 사랑방공동체교회 창립 3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동안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배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찬양은 공동체운영위원회에서 합니다.
- 예배후에 이어서 교회 공동의회(2021년 결산)와 공동체 총회로 모입니다.(2022년도 사업 및 재정계획)
- 멧쟁이학교 도보여행이 25일(월)부터 28일(목)까지 진행합니다.
- 결혼, 김지현 백신혜
4월 30일 토요일 낮 12시 브라이드가든 (김영동 · 전경희 집사 가정)
인천시 계양구 다남로 43번길 43-42
- 다음 주일은 어린이주일입니다. 어린이사랑방에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김영화 권사 (창립 기념 감사)
허철영 집사 · 강춘자 권사 가정 (창립 기념 감사)
이나영 · 이홍인 학생 (할아버지 생신 감사)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9 - 17 호

2022년 4월 24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들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혼인 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시며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기존의 유대인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시며 안식일에 행하신 일들은 그 당시 율법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던 사람들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빵이라 칭하시고 피를 마시라고 하시는 이상하고 괴기하기까지만 말씀은 끝내 유대인들의 반감을 증폭시키는 일이 되었고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기독교는 이처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이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은 43절 이후에 나오는 신도들의 공동생활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행2:43-47)

교회,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았던 신도들의 모습을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신도들이 한 것은 모두 함께 지내며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모이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사람들이 참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사랑방공동체는 교회의 개혁과 갱신을 생각하며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가 참 모습을 잃고 개혁되어야 한다는 소명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향한 개혁이며 갱신입니까? 바로 초대교회. 처음 성령님이 오셔서 세우신 교회의 참모습을 되찾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코이노니아,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38년 동안 사랑방은 이것을 향해 부단히 애를 쓰며 많은 분들이 부르심 앞에 헌신해왔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함께 소유하며 나누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서 보았지만 모든 신도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삶입니다. 이것은 지금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 권리를 포기하고 나누다니요. 이것은 결코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금식을 해야지 왜 먹고 마시냐’라고 질문하던 사람들의 질문과도 같이 ‘왜 다르게 살려고 하나. 왜 그렇게 유난스레 믿느냐’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사람들의 질문 뒤에 예수님은 다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마9:17)

사랑방공동체 38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이제 새 부대를 마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소명을 담아내기 위함이며, 처음 교회를 세우셔서 이루셨던 그 삶의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예수님의 그 새로운 모습을 따라갑시다. 새 포도주가 되어 새부대에 담갑시다.

사랑방공동체, 우리를 통해 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주간 말씀

“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 이사야 10장 21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로마서 1:18~32

제목 : 불경건한 세대에 경건한 그리스도인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68, 171

1. 내용관찰(What)

<문단구분>

18~22절 <사람들은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드러남

23~32절 <불경건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

내버려 두셨다. 3번 반복, 타락한 마음자리,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함.

20가지 악덕들

2. 내용의 의미(Why)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불경건의 시작은 불순종(아담)입니다. 경건은 순종(예수그리스도)으로 시작합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은 진리를 거부하며, 자신의 쾌락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타락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두셨습니다. 결국 인간은 인간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3. 의미의 적용(How)

- ① 경건의 삶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 생활에 힘쓰자.
- ② 경건하고 성결한 삶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자.

변하지 않는 것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계절은 겨울에서 봄으로 변했고, 세상은 꽃들과 새싹들로 가득하다. 평생 사람을 못 만나게 할 것 같았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도 점차 꺾여 일상이 회복되어 지고 있다. 참 반가운 변화다.

우리 가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코로나 시대의 시작과 때를 맞추어 나는 직장시대의 막을 내렸다. 새 직업에 적응하고 있지만 수입에 크~~은 변화가 있었다. 올해 초에는 진오와 진솔이가 대학원 진학과 취업으로 서울과 베트남으로 각각 떠나면서 임진숙집사와 둘만 남은 상황이 되었다. 4명이 같이 있다가 신혼부부처럼 둘만 있으니 흥분한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허전하기도 하다. 50대 중반에 부부가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조심해야 한다는데...

우리 마당에도 변화가 있었다. 얼마 전 목공방으로 사용하는 창고가 너무 좁아, 축대 쪽 화초와 작은 나무들을 반대편으로 옮겨 심고, 큰 나무들은 미안하지만 생을 마감시켰다. 축대를 따라 심어져 있던 철쭉들은 멀리 따뜻한 남쪽 공주로 시집보냈다. 집주인 내외가 인품이 훌륭하니 나무들도 집주인 닮아 새집에서 잘 자라기를 바란다.

나무와 화초를 파낸 마당에는 방부목 데크를 깔고 대형 천막을 설치하였다. 좁은 창고공방이 천막공방으로까지 확장되어 작업 공간이 넓어졌다. 딱 보기에는 공방보다는 삼겹살 구워먹기 좋은 분위기이다. 눈치 빠른 진오가 무림리 이사 오자마자 설치했어야 한다고 농담을 던졌다.(처음 무림리 이사왔을 때 너무 숯불구이를 많이 해서 진오가 제발 밥 좀 먹자고 했던 말이 기억난다.ㅎㅎ)

사랑방교회도 큰 아픔을 겪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 변화의 과정에 있다. 다행히 지난주 부활절과 이번 주 창립주일 즈음에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공동체가 새 힘을 얻는데 걸림돌 하나가 없어지는 것 같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으니 희망차고 즐거운 시간들도 주실 줄을 믿는다.

하나님은 세상을 늘 변화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다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 편 84:1-4, 10-12 인도자
10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마태복음 6:12-13 인도자
210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
- 설 교

이사야 10:20-23 설교자
아름다운 교회는, 감사하신 하나님 공동체운영위원
“ 남은 사람의 삶을 사십시오 ” 정태일 목사
< 성찬식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208 다함께
인도자
516(1)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채영대 장지영 / 봉헌위원 : 채영대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공동기도문

사랑방공동체교회를 뜻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변함없이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따르겠습니다. 아멘.

남은 사람의 삶을 사십시오

남은 사람들이 돌아온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주전 8세기는 북왕국이 이스라엘이 앗시리아의 침략으로 멸망당한 때입니다. 남왕국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백성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큰 충격으로 신앙적 회의에 빠집니다. 그리고 사회는 강대국에 의존하려는 갈등으로 불안했습니다. 이 때에 예언자 이사야는 그 날이 오면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남은 사람들의 의미. 남은 사람들은 고난의 과정에서도 믿음이 변함없는 신실한 사람입니다.<20> 또 남은 사람들은 사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일하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21>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22> 바울은 구속사의 요약<롬9장-11장>에서, 엘리야의 이야기<왕상19:18>를 인용하며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롬11:5> 증언합니다.

남은 사람의 삶을 사십시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불신앙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의 과정에서 신앙이 변질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기 보다는 사람들의 통치를 따르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기에 남은 자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하며, 택하신 뜻에 따라 공동체 삶에 충실하십시오. 기본적인 생활, 생활규범 12가지에 충실하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전경희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아직 물을 대지도 않은 논을 보러 귀락마을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좀 가물어서인지 말라있는 논두렁을 따라 이리저리 걷고 마른 물길을 풀썩 뛰어 건너 보았습니다. 하얀 민들레, 양지꽃, 꽃마리, 마른풀에 남은 씨앗들, 봄나무에 핀 꽃들, 졸졸 흐르는 물에 뜬 꽃잎, 밀등만 남은 벼와 그 사이 자란 푸른 풀들을 만났습니다. 여섯 살이 된 꾸러기들은 돌아갈 시간이 되도록 발이 다리가 아프다고 안합니다. 다음에는 좀더 멀리까지 가보기로 합니다.

꾸러기들이 베개의날 이어람 선생님네서 잔다고 친구들이랑 같이 하루밤을 보낸다고 잔뜩 들떴습니다. 함께 먹거리를 마련하려 장을 보고 전향옥 선생님네도 들렀는데 어린이 전선희 선생님께서 친절히 맞아주셨습니다. 아들람에도 갔습니다. 아는 동요들이 제법 있어 노래실력도 뽐내고 친구가 모르는 노래를 부를 때는 열심히 리듬을 타며 춤도 추었습니다.

저녁은 이어람선생님댁에서 준비해주신 밥과 김치에 부모님들께서 싸주신 반찬을 꺼내어 먹었는데 집이 가까운 쌍둥이네서 준비해 주신 것이 참 많아서 놀라고 꾸러기들이 매우 많이 잘 먹어서 놀랐습니다. 막 저녁상을 치우는데 윗집에 사시는 어린이 이현숙 선생님께서 치킨을 싸들고 깜짝 방문을 하셨습니다. 치킨배는 따로 있었는지 연신 이현숙 선생님 고맙습니다를 외치며 또 신나게 먹었습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다고는 해도 눈물을 흘리거나 보채지는 않고 쉽게 잠들고 아침에 깨어나서는 노느라 바쁩니다.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바로 위에 또 옆에 있는 좋은 이웃을 느끼며 여기 계속 살고 싶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여행을 함께 가자고 합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지난주 날씨는 참 다양했습니다. 여름처럼 더워져서 찬물과 에어컨 바람이 간절해질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흐리고 싸늘해서 도톰한 옷을 입고 난방을 틀어야 되기도 했습니다.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 보냈지만 봄꽃들은 아랑곳없이 예쁘게 피어나고, 매일 모래놀이터에는 성도 쌓이고 굴도 파지고, 갖가지

모래음식들도 만들어졌네요.

1학년 여자 친구들은 어느 날인가 타투 스티커를 가지고 와서 친구들과 언니들에게 타투를 해주더니, 또 그 다음날에는 분홍색, 노란색 매니큐어를 가지고 와서 네모하나 교실을 네일 샵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그런가하면 2, 3학년 친구들은 끼리끼리 다꾸(다이어리 꾸미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지난주부터 다시 개장한 어린이학교 도서관에서는 이제 읽은 책을 반납할 때마다 뽑기를 하나씩 할 수 있습니다. 뽑기 내용에 따라서 이다음에 상품과 바꿀 수 있어요. 책도 읽고, 재밌게 뽑기도 하고, 다음에 상품과 교환도 하게 되니 기대되고 신납니다.

도서관을 여는 날이기도 하고, 생활한복을 입는 날이기도 해서 월요일 자유 시간에는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축구와 트램펄린을 쉬기로 했습니다. 대신 도서관도 가고 전체가 함께 어울려서 다른 놀이도 하면서 보낼 거예요.

< 교사 : 전선희 >

멋쟁이학교

지난주, 기다려온 부활절을 지내고 멋쟁이들은 월요일 저녁에 등교하였습니다. 수요일 점심식사 후엔 날씨가 좋아 단체, 학년별, 부서별 사진을 다시 찍었습니다. 멋쟁이날으로 단정하게 양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생활관 문 앞마다 붙었습니다. 자신이 얼굴이 이상하진 않은지 문 앞에 옹기종기 모여 확인하는 아이들입니다~

목요일에는 'mz세대와 트렌드'로 공동심화학습 절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특별히 오후 열린수업 시간에는 서울숲 나들이 겸 다큐멘터리음악극 <1919 필라델피아> 관람을 다녀왔습니다. 학년별로 서울숲을 걷고, 한강을 지나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1919 필라델피아'는 감동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완연한 봄날씨에 나선 나들이가 즐거운 추억을 또 하나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1학기 여행의 꽃, 약 106km를 걷는 도보여행을 시작합니다. 강원도 화천에서부터 학교까지 걷습니다. 함께 걷고, 밥해먹고, 텐트에서 자고, 무거운 짐을 메고 견디며 걷게 됩니다. 힘든 여행이지만 여행을 잘 마치고 학교로 걸어 들어올 때의 감격은 아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첫날과 둘째 날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응원해 주세요. ☺ 멋쟁이, 아자아자 화이팅 ~!

< 교사 : 박예나 >

찬란한 봄날의 사랑방공동체 38번째 생일

지난주 부활절에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렸다.

코로나로 인해 인원 제약을 받던 교회가 부활절을 맞아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부활한 것이다. 오랜만에 마음 놓고 만날 수 있었던 지체들. 아직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활짝 웃으며 서로를 반기는 모습들이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다.

오늘은 사랑방공동체의 38번째 생일.

지난주에 미처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지 못했던 지체들이 나와서 오늘은 더 많은 지체들과의 만남이 있으리라 기대된다. 2년여의 시간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서로를 만나지 못했던 날들. 일상이었던 교회에서의 만남들이 많이 그립고 보고 싶었을 것이다.

공동체 뜰 안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

지난 중에는 많은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었는데, 오늘은 꽃은 많이 떨어졌지만 양증맞은 눈을 트이고 싹이 자라서 작은 잎새가 되어 벌써 나뭇잎들이 커지고 초록으로 물들어 가고 있다. 생명력이 넘치는 이 봄날 우리도 이 자연과 함께 묻혀있던 생명력을 활기차게 끌어내어 침체 되었던 우리들의 가슴에 벅찬 소망을 깨워 사랑방공동체를 뜨거운 가슴으로 안아보자.

처음 사랑방공동체가 탄생할 때 그 찬란했던 봄날처럼 지금 이 찬란한 봄날을 벅찬 가슴으로 맞고 싶다. 지난 어두운 날들 다 잊어버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아있는 자들이 새 힘을 얻어 다시 시작되는 사랑방공동체를 깊이 사랑하고 바르게 이루어 나가는 모든 지체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방공동체 지체들에게 내려주시길~~~

그루터기사랑방 장미숙 권사

<수요 정오기도회>

말씀 : 사도행전 2:42-47

인도 : 이어진 전도사

기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스리랑카를 위한 기도>

4월 12일부로 스리랑카는 국가부도가 임박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경제난을 겪게 되면서 온갖 생필품난이 발생하고 물가가 급등했습니다. 기름과 종이조차 제대로 구할 수 없는 등,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위협받는 이 상황을 위해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꿈이있는 교회>

-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롭게 잘 이루어지도록
-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있는 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 공동체 어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공동체를 위한 기도<지체들을 위한 기도>

- 두레공동체의 정기원 교장선생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그 공동체와 유가족을 위해.
- 총회와 공동의회를 위해
- 사랑방창립주일을 위해

<생활공동체 소식>

고난 주간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침 기도회'에 생활공동체 식구들이 참여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요즈음입니다. 매일 매일 그날에 필요한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니 더욱 좋습니다. '수요정오기도회'도 대면으로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니 한 주간의 힘이 되고 더욱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점차 공동체가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주변 정리도 박차를 가하여 다들 열심히 작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사렛 목공소 목재 건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한 주간 동안 구슬땀을 흘리셨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